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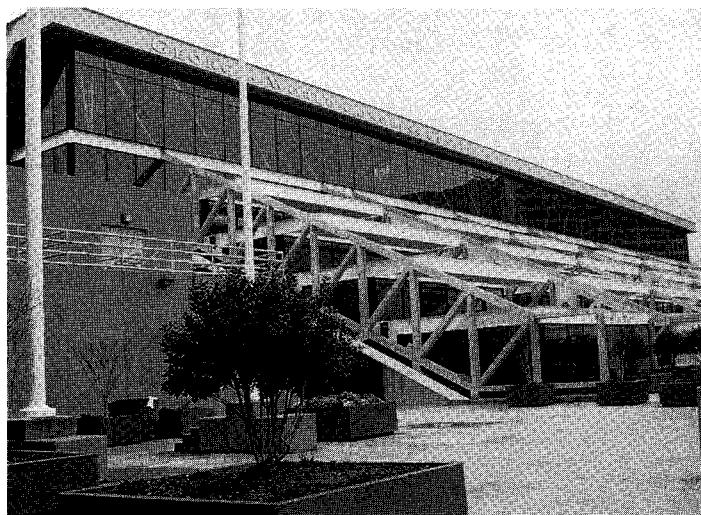
□ 취재/김동진 기자

아틀란타 국제양계박람회(International Poultry Exposition)가 지난 1월 19일~21일 3일간에 걸쳐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콘гр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제52회째를 맞이한 이번 아틀란타 국제양계

박람회는 종계, 약품, 사료, 위생, 기계기구, 건축, 유통, 교육, 환경, 에너지, 포장, 연구, 컴퓨터 프로그램, 운송, 수질처리, 에너지, 컨설팅 등 27개 분야에서 1,020개 업체로 부터 6,118개 부스가 참가, 설치, 전시되어 대성황을 이루었다.

21명으로 구성된 2000아틀란타 양계박람회 참관단 일행은 첫날 19일 박람회장을 돌아보고 다음날 농장과



△ 1,020여 업체가 참가한 박람회장 내부 전경(부스 규모가 국내 축산박람회보다 17배 정도가 크다)



△ 국내에서 박람회에 참관한 양계인들이 시장조사에 열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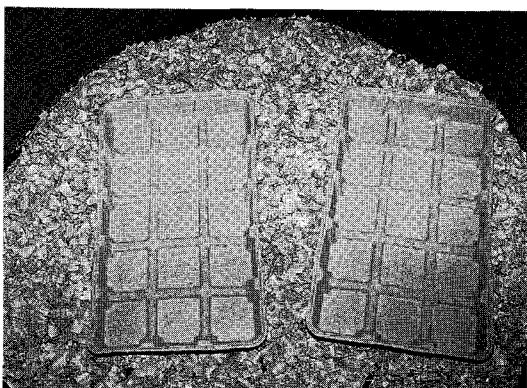


△ 2000아틀란타 양계박람회가 열린 Georgia World Congress Center

GP센타를 방문한 후 다시 박람회장을 찾아 전날 접하지 못했던 정보를 다시 얻는 기회를 가졌다.

30불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하기까지 40여분 정도를 기다리는 동안 약간 무료한 감을 느꼈으나 컴퓨터를 통해 바코드가 인식된 개인 명찰을 만들어 주는 등 처음부터 조직적이고 치밀한 박람회 운영의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박람회장은 EAST-RED HALL(1,900여 부스)과 WEST-BLUE HALL(4,000여 부스)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EAST-RED HALL은 대부분 종계, 기계, 약품, 시료 등 생산과 관련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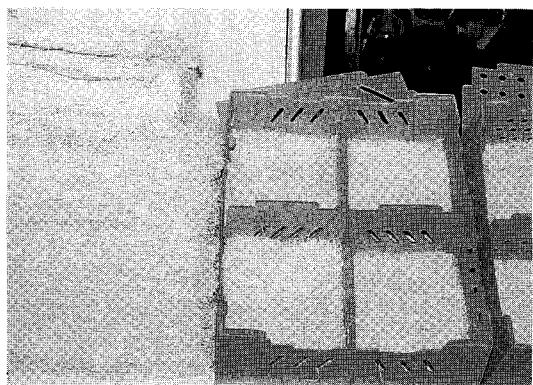


△ 종이로 만든 병아리 금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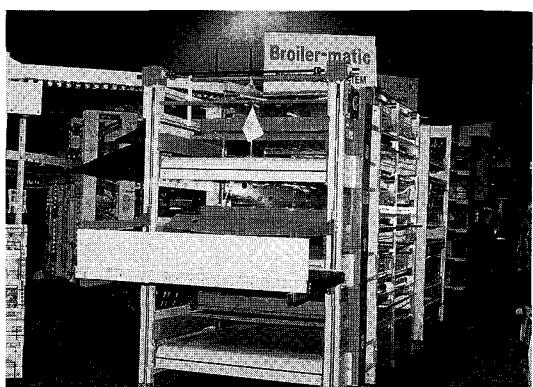
제품들이 전시되었고, WEST-BLUE HALL은 가공제품 기계, 기구 및 계란협회 등 홍보와 관련된 업체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과거에 본 박람회 참관 경험이 있는 일행들 중에는 과거보다 많이 축소되었다는 지적이었지만 국내 규모에 비해 부스가 17배나 큰 것을 볼 때 처음 참관한 기자로서는 설불리 평가하기가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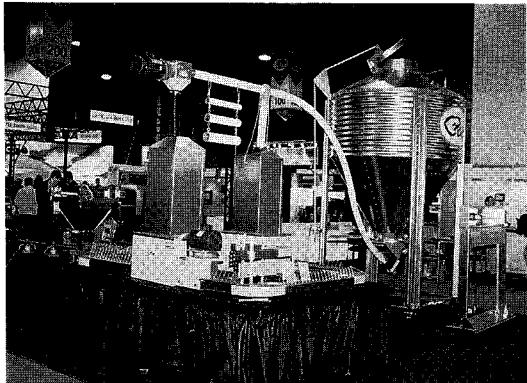
이번 박람회는 국내 박람회 보다는 전시행사의 비중이 거의 95% 이상을 차지해 그 넓은 전시장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활기찬 비즈니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 소나무 등 목재로 만든 깔짚



△ 육계 직립식 케이지



△ 자가 사료 배합기 및 사료탱크



△ 무공해 처리되는 폐계 및 병계 소각기



또한 업체기업 이미지 부각을 위해 짜임새 있는 부스설치에 힘썼음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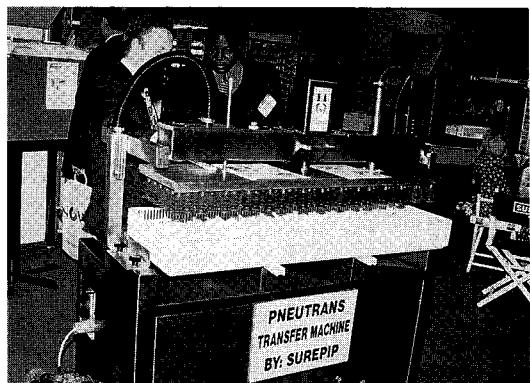
이번 박람회에서 새롭게 볼 수 있었던 것은 간편한 종이모이통, 소나무를 이용한 깔짚, 환경친화적인 소각기, 백신접종용 바늘없는 주사기, 8단 직립식 케이지, 가공 포장기, 자가 배합사료 제조기, 부화상자 세척기, 간편히 설치할 수 있는 출입문, 육계케이지, 육계포획기 등을 새롭게 볼 수 있었으며, 참관객들의 편의를 위해 박람회장 내에서 무료 이동용 자동차를 운행하는가 하면, 어느 부스에서는 손님들을 위해 이발을 해주는 곳도

있었고, 손님들을 위해 마사지를 해주는 곳도 있었다.

박람회장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환풍시설이 잘 되어 있어 실내에서도 쾌청함을 느낄 수 있어 국내 박람회에서의 소음 속의 축제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

박람회장 외부에는 점심 등 간식을 할 수 있는 간이 음식점들이 있었으나 박람회장 내에는 간단한 햄버거 종류 등 스낵코너가 출입구쪽에 설치되어 있을 뿐 부스내에 시식 코너라든지 판매코너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시설면에서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미국지역은 자가배합사료기를 직접 운영하는



△ 180개의 종관을 이동할 수 있는 흡입기 및 상자



△ 각 부스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상담에 열중하고 있다.

곳이 많은 관계로 자가배합 기기를 홍보하는 회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박람회 부스의 1/4정도가 도계라인, 포장라인 등 가공시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가공기술의 발달정도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본 박람회와 연계하여 17, 18일 양일간에 걸쳐 양계관련 105가지의 주제로 국제가금학술 발표회(IPSP)가 있었으며 박람회 기간중 출품업체들은 대학생들을 면접하여 직원으로 채용하는 기회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후 5



△ 출품업체의 1/4 정도가 거의 가공시설이 주류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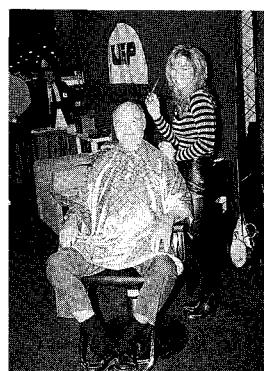
△ 8단 칙립식 케이지



△ 부화 및 병아리 생산 자동 세척기



△ 육계 출하시 포획기(이동차량, 상자 등을 한 세트로 가격이 10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위의 성능을 과시하며 △ 관광객을 위해 마시지를...
이발을.....



시 박람회 참관시간이 끝난 후 각 업체별로 세미나를 하는 등 각 업체의 홍보를 위한 행사가 펼쳐지기도 하였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 양계관련인들은 본 참관단원을 포함해 약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이웃 일본도 150여명 정도가 박람회에 참석한 것으로 일본 관계자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2일에 걸쳐 돌아본 박람회지만 '주마간산' 격으로 돌아본 감이 있어 아쉬움을 주었다. 양개

〈박람회장에서 만난 닭(鷄)들〉

